

이재명 '극우 내란' vs '헌정 수호' 프레임 굳히기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견제
 안정적 국정운영 기초 강조
 양자대결 염두... "중도 흡수"

6·3 대선이 종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보수후보 단일화 견제, 중도층 흡수 등 대선 승리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6·7면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지키고 있는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파면으로 치러진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헌정 수호'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앙당 기자회견에서 "다시는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치는 무도한 권력이 등장하지 않도록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며 "국민 곁에서, 국민과 함께 내란을 막아낸 제가 내란 종식과 국민 승리의 도구가 되겠다"고 역설했다.

최근 유세에서도 "이재명이 밀더라도, 민주당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결코 내란 세력을 지지하거나 기회를 다시 줘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대선 레이스 후반부 들어 자신을 비롯한 민주당이 내란 극복에 앞장선 '헌정 수호' 세력이라든가 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반대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메시지를 양산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극우 내란' 세력으로 평가절하했다. 이는 '헌정 수호' 대 '극우 내란'이란 프레임 굳히기에 들어간 것으로, 국민들에게 이번 선거가 치러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의 막판 변수로 부각된 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1강 1중 1약' 구도, 즉 3자 대결로 대선이 치러지면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분석이다. 하지만 보수 후보 단일화가 성사돼 3자 대결이 '일 대 일'로 재편되면 상황은 급변한다. 단일화로 양자 대결이 성사되면 각 진영 지지층이 최대한 결집하기 때문에 '50 대 49' 싸움이 될 수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결국 내란세



24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일원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제25회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오월정신을 되새기며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력과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까 예측된다"며 "국민께서 내란세력과 헌정수호 세력 간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진행한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 관련 질문을 했고, 이 후보로부터 "단일화는 안 한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더불어 대선 전까지 논란이 될 만한 입법이나 정책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최근 유세에서 논란이 된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나 제입장이 전혀 아니고 개별 의원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두고 판단하는 시점에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국민의힘의 '입법 독주' 프레임에 대응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초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막판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중도·무당층 유권자의 표심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과감한 중도 확장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강조했던 '기본사회' 등의 가치보다는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두고 친기업 행보 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현수 기자

전국서 모인 러너들 오월 광주를 달렸다

5·18기념재단·전남매일 공동주최 제25회 5·18마라톤대회

1980년 오월정신을 기리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 제25회 5·18마라톤대회가 지난 24일 1,500여명의 러너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관련기사 2·3·4면

5·18기념재단과 전남매일이 주최한 이번 마라톤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5·18의 역사적 상징성이 큰 국립5·18민주묘지 일원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국립5·18민주묘지를 출발해 망월지 입구를 거쳐 수곡지를 거쳐 되돌아오는 5.18km 코스와 5·18민주묘지 삼거리, 하나농장, 수곡지를 거쳐 국립5·18민주묘지로 돌아오는 10km 코스로 나뉘어 달렸다. 무렵지 않은 약 1시간 30분 내내 5·18민주묘지 일대를 달리는 레이스는 오르막길이 있어 다소 힘들었지만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동호회·가족 등 1,500명 출전
 5.18km 이재식·김유진씨 1위
 10km 박홍석·정순연씨 우승

개회식은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김경남 전남매일 대표이사, 양부남·민형배·이개호·전진숙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문인 북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채은지 광주시의회 부의장 등 많은 귀빈이 참여해 오월정신을 함께 기렸다.

원순석 5·18 기념재단 이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소중한 희생을 치

르며 얻은 역사의 교훈이 내일의 이 땅에 소중한 유산"이라며 "마라톤에 참가한 모든 러너의 발걸음은 민주주의를 향한 길이며 소중한 역사를 지키는 여정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전했다.

김경남 전남매일 대표이사는 "5·18정신을 기억하며 마음껏 달려 기량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나라를 위한 5·18마라톤이 되길 바란다"며 "계엄을 이겨내고 탄핵을 넘어 이제는 투표를 해야 할 때인 만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차게 뛰어보자"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오월 정신을 되새겼으며 출발 전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 뒤 힘차게 출발했다.

5.18km 코스는 남자부 이재식씨, 여자부 김유진씨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10km 코스는 남자부 박홍석씨, 여자부 정순연씨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최진화 기자

농어촌수도 해남
 Agri Art Capital Haenam

지친 일상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힐링은 해남처럼